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내달 19일까지... 자격 완화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19일까지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을 공모한다. 후보자의 자격에는 종교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추천자 자격 또한 관련 전문분야 인사와 본인 추천으로 간소화해 많은 작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출품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제작된 작품을 한한다.

불교언론문화상 시상 내역은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1작품 ▷불교언론인상 1인 ▷TV부문 최우수·우수 ▷라디오 부문 최우수·우수 ▷신문 부문 최우수·우수 ▷특별상 3인 이내로 대상 1천만원, 불교언론인상 5백만원, 각 부문 최우수·우수상에 각각 5백만원과 200만원 등 총 4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심사결과를 11월 말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종일 기자

태고종 덕암 대종사 탄신 1백주년 기린다 10월 8일 법륜사서

태고종 법륜사와 덕암화상문도회(회장 해일)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법륜사(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법륜사 종장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10월 8일 법륜사 4층 대법보전에서 열린 법회는 임제식을 시작으로 덕암 스님 사리진건과 유물전시회, 서예·사진전시회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는 세미나도 열린다. 김주일 기자

정한영 구속 폭행, 횡령 등 혐의

정한영(성호 스님)씨가 9월 19일 법정 구속됐다. 따라서 정한영 씨는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10월 중 전주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씨는 금당사 문화재단장료 등 8300만원을 횡령하고 해당 사찰 총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전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씨의 구속을 결정했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정한영 씨 지지 세력인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은 9월 25일 전주 지방 법원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청소년 인성교육, 종교계 나선다

문광부, 2013년 신규 사업 선정... 예산 11억원 배정

문화체육관광부(관장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내년부터 종교계와 함께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문화부는 9월 27일 브리핑을 열고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운용 방안에 따르면 문광부는 종교계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11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불교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개신교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활동', 천주교 '청소년 또래 공동체 운영', 유교 '부자 캠프, 사제 캠프', 원불교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풀이', 천도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민족종교 '전통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및 종교계가 연합해 진행되는 '청소년 종교평화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며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로는 불교의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등 4개 사업에 2억 원이 지원되며, 개신교에도 7개 사업에 2억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천주교와 원불교, 종교연합단체에 각 1억 5000만원, 유교와 천도교 각 1억원, 민족종교 5000만원씩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문화부는 "종교계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구미 도리사에서 개최하는 '마음나눔' 템플스테이.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사례로 선정됐다.

학교 폭력 예방에 기대 높아 종교 관련 예산 소폭 감소

가정·학교·사회의 관심을 높여 나가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 관련 예산에 대한 운용 방안도 발표했다. 종교문화 유산 보존을 비롯해 ▷종교활동 지원 ▷종교문화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524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소폭 감소됐다.

부문별로 보면 종교화합과 교류지원은 55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종교시설 건립은 178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축소됐다. 종교 문화활동 지원은 61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늘었으며, 불교와 밀접한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예산은 23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올해까지는 종교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편성됐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 관광문화상품인 템플스테이 예산은 경성비 100억 원, 시설지원비 85억 원 등 총 185억 원이 배정됐다. 템플스테이 예산도 올해 200억 원에서 소폭 감소됐다. 템플스테이도 시설 증대보다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뒀으며, 예산안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중도를 안 자리가 바로 깨달음"

조계종결사추진본부 '야단법석 2' 진행

고우·도법 스님 문답 나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고우 스님(사진)이 깨달음에 대한 실상을 대중과 논했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은 9월 26일 조계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진행했다. 이날 법석에서는 도법 스님이 질문하고 고우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우 스님은 중도를 바로 알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스님은 "깨달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다. 육조 대사의 경우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며 "사람마다 차이는 존재하고 깨달음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궁극적으로 깨닫는다는 것



은 분별심을 가지고 사고하는 이원적 인식 구조로 정화하는 것"이라며 "그것의 시작은 현실에서 '나'라는 분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부처임을 깨닫는 중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법 스님은 "연기와 중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깨달음을 채우는 내용이라면 결국 이를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의 실제"라며 "신비화되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야단법석에는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신종일 기자

"전 세계에 평화의지 전할 터"

조계종포교원 UN방문... 평화의 밤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정전협정 60돌을 맞아 미국 현지에서 세계빈곤아동 돕기 및 UN참전 용사를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밤 행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및 추모행사, 반기문 UN사무총장 예방, '천년의 문화 천년의 평화' 순으로 열린다.

11월 1일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및 추모행사'에서는 무명용사 탐 참배와 추모 다례제가 진행된다. 다음날인 11월 2일에는 반기문 총장을 방문해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세계 빈곤아동을 위한 기금 10만 달러를 전달한다. 이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포교 및 신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 뉴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봉행되는 '천년의 문화 천년의

평화' 행사에서는 단청을 소재로 한 문화 축제를 열고 지구촌 전쟁종식과 평화 선언을 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 유엔 대사 및 각국 대사, UN참전군 참전용사, 미국주재 한국인 오피니언 리더, 대한불교조계종 평화사절단 등 150여 명이 동참한다.

이번 행사가 의미깊은 것은 내년 9월 14일 예정인 '부산 UN포지 한국전쟁 정전 60돌 추모행사'와 평화대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돌을 기념하여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 의지 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대회 거행 한반도 평화정착 및 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10.27법난위원장 지현 스님 선출

25일 회의서...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최근 민간위원 교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10.27법난명예회복심사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에 지현스님(조계종 총무원장·사진)이 선출됐다. 하지만 안건에 대한 이견 차이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폐회됐으며, 前 위원장 영담 스님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천명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사위원회는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회분과 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 ▷심의 안건 ▷보고 안건 ▷진급 안건 등이 상정됐다. 진급 안건은 영담 스님이 제안한 것으로 법률 시한 종료 후 10.27법난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방안과 역사교육관 완공 후 운영 방안, 피해 종교단체 신고서를 제



출한 조계종의 법적 범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현 총무원장 지현 스님이 선출됐다. 하지만, 선출 직후 지현 스님은 업무 파악 미숙을 이유로 전임 위원장 영담 스님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했고, 위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또한, 위원들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과 진급 안건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으며 폐회를 요구했다. 허남오 위원은 "마칠 전 자료집을 받았는데 안건이 108건이나 돼 미처 살펴볼 수 없었다"며 "안건들을 잘 심

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의 요구대로 위원장 교체가 이뤄지고 회의가 열리면서 위원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영담 스님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비공개 회의 전환 이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위원 교체의 당위성을 비롯해 ▷민간위원 비대위 활동 ▷지원단장 직위 해제 등에 대해 밝혔다.

특히 비대위 활동에 대해 영담 스님은 "정부 조직에서 비대위 등 사적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비대위가 근거없이 비방하고 사퇴를 시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조만간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나눔으로 함께하는 이취임법회

중앙신도회 10월 13일 조계사에서

조계종중앙신도회 이취임법회가 나눔 문화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중앙신도회는 10월 13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하는 '제24대·제25대 회장 이취임식' 법회를 소외이웃을 위한 행사로 진행한다.

따라서 중앙신도회측은 지역독거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친환경 햄살을 전달하고 교정시설에 교양도서 2천권을 모아

보낸다. 중앙신도회측은 "축하회환을 정중히 사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쌀과 책 등을 기부해 나눔 문화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교구 중심의 전국 대표 등 사부대중 2천 여명이 동참하는 법회는 ▷참여대중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한마당 ▷자비의 쌀 나누기 ▷교정시설 희망 도서 보내기 ▷기념품 나누기 ▷이·취임식 등으로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 이상 @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since 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